

韓國 看護教育發達の 史的考察

梨花醫大看護學科 朴 煥 淑

1. 看護教育의 初創期

병들어 虛弱한 사람을 돌보려는 心情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더구나 女子들에게는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特히 우리나라 女性들은 옛날 부터 老人을 待養하고 病者를 돌보는 일을 天職으로 알고 집안에서 實施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孝道, 婦道, 母性愛를 토대로한 即 家族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家族을 中心한 本分에 그쳤던 것일니다.

우리나라 歷史가운데서도 現代看護와 흡사한 小規模의 看護組織體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即 李朝時代 1406년에 처음으로 童女 數十名을 모아 醫學을 教育시켜 婦人과 小兒의 患者를 主로 看護하게 하는 憐女制가 생겼읍니다. 이것이 宗教看護를 除外한 東洋에서 처음보는 專門看護員이었다고 볼수있읍니다.

初期에는 社會的으로 相當한 好評을 받았으나 當時의 舊態依然한 現實主義와 固執한 社會的인 保守性에 사로잡혀 아무런 發展도 보지 못하

다가 1882年 韓美守護條約 締結을 契機로 물결처럼 밀려드는 西洋의 風潮에 刺戟을 받아 政治, 社會, 教育, 文化面에 革新의 氣運이 싹트기 始作하였을때 現代醫學도 다른 新學과 마찬가지로 宣敎師들의 손을 거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 되었고 基督敎 團體의 醫療活動이 盛行됨에 따라 看護員의 育成도 時急하게 되었던 것일니다.

特히 近代에 와서 英國人 「나이팅게일」(1820~1910)女史의 뛰어난 看護의 業績과 勞苦를 感謝하면서 거두어진 誠金을 財源으로 「런던」에 있는 聖 토마스病院에 「나이팅게일」式 教育方針에 依한 看護學校가 처음으로 設立되었으며 이러한 看護學校는 女史 生前에 여러나라에서 結實을 보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그 後繼者들이 들어와서 宣敎使命을 膺하여 看護教育機關을 세우는데 全力을 다 하였읍니다.

이때를 같이하여 1884年 美國長老敎會 外國宣敎會에서 派送된 「알렌」(Dr. Horace N. Allen) 醫師에 依

해 王位廣濟院(後에가서 濟衆院으로 改稱됨)이 建立되었습니다. 其後 1904년에는 이 病院을 캐나다 宣教師 「에비슨」 醫師 (Dr. O. R. Avison) 가 세브란스病院으로 開設하였는데 막상 開業을 하고보니 訓練된 看護員이 없어 美國 宣教師 看護員들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美國 北監理教 宣教會에서도 1886年 「스크란튼」 (Dr. Wm B. Scranton) 醫師가 貞洞에 처음으로 診察所를, 設立하였고 1888년에 「하워드」 (Dr. Metro Howard) 醫師가 「스크란튼」 醫師와 같이 婦人病院을 設立 하였습니다. 이것이 貞洞 普救女館이요, 後日에 東大門婦人病院이었고 現 梨大附屬病院의 前身입니다.

이렇게 病院이 建立됨에 따라서 訓練된 看護員이 必要하게되어 1902年 美國 監理教 女宣教會에서 派送된 看護員 「에드먼드」 (Miss Margaret Edmonds) 嬢이 當時 普救女館內에 1903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看護員 養成所를 設立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後日 日帝時 中斷 되었습니다.

그 當時 上下流를 莫論하고 女子들의 教育이 거의 없었고 看護事業에 對한 一般의 認識不足等은 養成所 學生들을 募集하는데 많은 支障을 招來하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設備도 없고 韓國語로된 教材하나 제대로 없어 優秀한 看護員을 養成

하는데 支障이 많았습니다.

그때의 教育進行 狀況을 簡單히 概觀해보면 教育을 充分히 받은 女子를 求하기가 어려웠으므로 不得已 看護員의 修業年限을 六年으로 定하고 基礎教育 까지도 擔當했으며 看護員養成所의 入學요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父母의 承諾書, 教會추천서 健康診斷書, 小額의 入學금이 必要하며

둘째; 理論學으로 看護理論, 解剖學, 生理學, 衛生學, 滋養學, 中藥學 解毒法, 熱性病, 産科學, 外科學, 傳染病等이 있었고

셋째; 實習課目으로 病室과 診察所와 手術室에 關한 實習, 個人看護法, 봉대學, 沐浴法, 안마술, 看護服製法等이 있었습니다.

이 養成所는 創立된지 三年만에 即 1906年 1月 25日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看護員의 加冠式(capping exercise)을 舉行하게 되었고 1908年에 2名의 卒業生을 輩出 하였습니다. 이것이 韓國歷史上 처음으로 規模있는 組織體로서의 看護學校의 始作인 것입니다.

두번째로 생긴 看護員養成所는 病院으로서는 普救女館보다도 먼저 設立된 세브란스病院에서 1906年 「실스」 (Miss Ester Shields) 嬢이 看護員養成所를 設立하였는데 그 病院 施設面을 보면 四十個의 침대와 중

은 手術室, 그리고 普救女館보다 나은點이 많아 두 病院의 養成所間에는 合班講義도 하며 看護學生들의 水準은 올리고자 交換實習도 자주 行해 졌습니다. 「실스」襲이 세운 看護員養成所는 1907年 當時 在籍學生數는 五名이 었으며 세브란스病院에서는 첫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의 加冠式을 1908年 6月 12日에 舉行 하였습니다. 1910年 6月 10日에 第1回 卒業式을 했는데 이때 卒業生은 오직 한사람 뿐이었습니다.

그후 1924년에 四年課程으로 되었으며 卒業生은 國內 여러곳에서 看護事業에 從事하게 되었습니다. 1906年 세브란스看護員養成所가 創立되어 1960年 現在까지 五〇名의 卒業生을 輩出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養成所 外에도 平壤, 咸興, 大邱, 開城, 光州, 全州等地에 宣敎病院附屬看護員養成所가 設立되었습니다. 위의것은 모두 宣敎系統의 看護員養成所였고 한편 一般에서는 各道에 道立病院附屬看護員 및 助産員(산파)養成所가 設立되었습니다.

이는 1913년부터 速成 助産員 養成을 目的으로 始作했으며 行政府에서는 1914年 산파試驗規則를 發表하고 各道에 산파試驗을 施行하여 그 數의 增加를 圖謀하였습니다.

그 當時 官公立 看護員 養成所가 있었던 곳은 서울의 京城帝國大學 醫學部附屬病院과 京城醫藥專門學校

附屬病院이었으며 地方으로는 平壤, 大邱, 咸興, 晉州等 道立病院 이었습니다.

特殊 行政機關에서도 助産員과 看護員養成을 施行했는데 이는 龍山 鐵道病院과 釜山府立病院, 鎭海 海運 診察所等이었으며 私立으로는 釜山 鐵道病院과 朝鮮 질소 肥料株式會社 等地에서 看護員을 養成하였습니다.

이때 一般 養成所에서의 (宣敎系를 除外한) 敎育面을 보면 高等小學校 또는 普通學校 高等科 卒業者 또는 同等以上の 學歷을 가진 者에게 入學이 許諾되었고 修業年限은 二年으로하여 一年을 二學期로 區分하여 一學年 一學期에는 一週에 朝鮮語, 日語, 專門課目, 敎授時間이 二十八時間, 實習은 午前, 午後로 하고 一學年二學期에는 一週에 敎授時間 十八時間, 實習은, 每日 午前中과 午後에 하였습니다. 二學年에 가서는 一週敎授時間 三時間은 主로 修身, 衛生法規를 하였고 實習은 하루종일 繼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育成하여 그 面貌를 一新해가는 現代看護는 1945年 解放前까지 日本의 統治期間中 두 갈래의 敎育期間을 通해 發展해 왔는데 1930년에는 宣敎系統 看護員養成所가 八個校였었고 政府管轄下의 看護員養成所 十七個校 었습니다.

1940年度의 看護員養成所 入學水準도 比較하면 宣敎系統이 當時 大概 高等普通學校 卒業生으로 하는

反面 一般에서는 高等普通學校 二年 修了程度로 했으며 二次大戰中에는 西歐人들의 撤收와 戰爭準備로 看護教育은 아주 低調한 狀態에 있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 當時看護員養成所의 行政面을 살펴보면 養成所 名義上 最高責任者(所長)는 大概가 醫師였었습니다. (宣敎系統에서는 看護員들도 있었지만). 따라서 直接 責任者가 看護員이 아니었기 때문에 內容的으로는 더욱 充實을 期할수 있었다는點을 짐작할수있습니다.

制度上으로는 主로 患者中心의 看護였으며 部分的으로 養成所가 있는 機關中心으로 便利하게 教育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一般系와 宣敎系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宣敎系는 宣敎師 看護員을 통해 소개된 歐美式 경향의 看護로 患者中心의 入院患者 看護에 重點을 두었고 一般系에서는 日本政府의 官立機關을 통해 소개된 日本式 경향의 看護로 即 醫師補助 中心으로 外來患者에 重點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助産教育面을 보면 特別히 看護員이 아니라도 高等普通學校 卒業하고 一年 或은 二年程度의 산과養成所 課程을 마치면 산과가 될수있었습니다.

1923年 看護員養成所의 教育事業을 効果的으로 進行할 方法을 研究할 目的으로 한 組織體를 構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朝鮮看護員會였습니

다. 이때의 會員數는 約五十名 程度였고 이들은 看護事業을 國際看護協會가 要求하는 世界的인 水準에 올러 놓기 爲해 끊임없이 努力하였습니다.

이 會에서 活動한 사람은 적어도 高等普通學校 二學年 教育을 修了한 사람이어야 養成所에 入學을 許諾하기로 決議하였고 1925年 부터는 한글과 英語를 併用하여 朝鮮看護員會報를 發刊하였으켜 1930年에는 教科書로서 「막스웰」(Maxwell)과 「폼」(Pope)의 共著「實用 看護學」과 「가드너」著「公衆衛生學」, 「약」과 「스트릴」의 共著「看護史」等을 刊行 出版하였습니다.

이것이 看護員養成所 以來 처음으로 教科書로 登場한것이 있습니다. 國際看護協會에 加入하려고 이렇게 모든 準備를 다한 朝鮮看護會는 1929年 開催된 國際總會에 正式 會員加入을 申請하였는데 看護水準은 認定받았으나 한 나라에 一會員權을 許容하는것이 同會의 規定인바 日本看護員會에서도 入會를 請願하므로서 政治的인 關係로 因하여 會員權은 認定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919年 第一次大戰이 끝나고 三.一運動이 있은後 女性들도 職業에 對한 認識이 새로워 졌으며 高等教育을 받은 優秀한 女性들 中에 看護學校를 志望하는 數가 많아졌고 1937年 支那 事變以後 1945年 第二次大戰이 끝나고 韓國이 日本政治로부터 解放이 될때 까지는 他部分의 教育

이나 마찬가지로 看護教育도 아주低調한 狀態로 發展을 못하고 모든 人員과 生覺을 創意的으로 쓰지 못했으며 戰時體制의 現象만 維持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2. 解放以後의 狀況(1945年 以後)

1945年 8. 15 解放을 맞은 우리나라는 美 軍政下에 놓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教育도 日本 專制主義의 立場을 清算하고 새로운 民主主義의 教育을 指向하게 되었습니다.

美 軍政이 實施되자 이해 十一月에 當時 學務局長을 中心으로 教育 審議會를 組織하였으며 그들은 우리나라 建國理念에 立脚한 教育理念 아래 教育의 民主化와 機會均等의 原則을 實現하는 方向으로 初等 普通 教育을 義務教育으로 하고 中等 教育을 擴充할것에 杼心하였습니다.

이 政策은 國民들의 教育熱과 더불어 各級學校는 勿論 看護教育에도 飛躍的인 景의 發展을 보게한 契機를 만들었습니다.

看護教育에 있어서는 美 軍政 初期에 保健厚生部內에 看護事業局 職制를 두어 全國의 看護員養成所를 整備하고 새로운 基準에 符合되는 機關만을 高等看護學校로서 認可하고 最低入學水準을 中學卒業者로서 統一케 하였습니다. 그러던中 1948年 8月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자 이듬해에는 教育法이 制定 公布되었던 것입니다.

이 新學制는 中等教育機關으로 三年制의 中學校와 三年制의 人文高等學校 및 技術高等學校를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看護高等學校도 技術高等學校 規定에 비추어 看護學校 行政에 큰 變化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學校로서 認可는 文敎部에서 許諾하고 看護教育에서 必要트하는 實習病院 諸般 設備等 技術的인 面은 保健社會部에서 管理하게 되었습니다.

1949年 看護高等技術學校로 認可 받은 學校가 十八個校가 되었으며 1950年度 在學生數는 1,155名이나 되었습니다. 看護教育이 年々이 發展되어 오다가 不幸히도 1950年 6. 25 動亂으로 大部分의 學校는 一時에 폐쇄 되었다가 1951年末에 가서 겨우 看護學校 十三個校가 다시 開校되었으며 1952年度 在學生數는 889名이 되었습니다.

以上과 같이 看護學校 認可는 文敎部에서 管理하고 看護學校의 技術的인 監督과 看護員의 免許行爲에 관한 監督은 保社部에서 施行하였으나 文敎部에는 看護教育을 爲한 機構의 職制가 전혀 없었고 保社部內에는 醫政局에 看護事業課가 있으나 專門職의 人員不足으로 因하여 當面한 行政措置 外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大韓看護協會에서 看護學校 最低教科課程에 對한 提案, 再教育, 講習, 教材準備, seminar 開催等으

트 行政當局을 橫으로 補佐하여서 看護教育 水準向上에 이까지 한 點은 높이 評價할만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여기서 解放後 看護協會의 發廢狀況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1946年 11月 免許 所持한 看護員들 200餘名이 總會를 열고 當時 美軍政下 保健厚生部 看護事業局 協調로 全國的인 再發足を 보아 道單位로 支部를 組織하고 「朝鮮看護協會」라는 이름으로 名實共히 韓國 看護員들의 自治機關으로서 發展하게 되었읍니다. 1948年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同時에 「大韓看護協會」로 改稱되었고 이듬해에는 오랫동안 政治的인 問題로 保留되었던 國際看護協會에 正式會員國으로서 加入이 1949年 瑞典(Swederr)에서 열린 第九回 國際看護協會 總會에서 認準되었읍니다.

動亂中 많은 會員들이 拉致, 死亡, 失蹤되었으나 本部를 釜山으로 定하고 行政部를 도와 活動을 繼續하였읍니다. 特히 收復後에는 教材出版과 post graduate edncation等에 많은 成果를 올렸읍니다. 其後 1953年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루」에서 十回, 1957年 이태리 「로마」에서 十一回, 1961年 오스트달리아 「멜본」에서 十二回, 國際看護協會 四年 總會에 大韓看護協會 代表가 繼續 參加하여 國際的 交流에 힘썼읍니다.

따라서 大韓看護協會 教育部에서 는 國際的 看護教育 水準과 國內 實

情을 참작한 새로운 敎科 및 時間 配定表를 作成하여 保健社會部に 建議하는 한便 各看護學校 專攻課目에 要點을 作成 發付하여 1965年 現在 까지 使用되고 있습니다.

解放後 看護教育의 全體的인 面을 概觀해 보면 制度上으로는 文教部의 看護學校 認可와 保健社會部의 特殊技術 部門 監督이 결하여 實施되면서 學制上 統一은 가져왔으나 內容的으로는 學校에 따라서 教育程度의 差를 免치 못하였읍니다.

學校 行政面으로 보면 解放前에는 學校責任者가 大概是 醫師였지만 解放後에는 看護員으로 學校長 或은 敎務責任者가 大部分 登用되어 看護教育의 特殊性을 살리는 方向으로 많은 看護學校가 運營되고 있습니다. 1953年 釜山 日新病院內에 六個月 課程의 助産員을 爲한 特殊敎育課程이 設置되고 1954年 保社部와 看護協會에서 外援의 도움으로 看護研究를 開設하여 1957년까지 臨床看護, 保健看護의 卒業生을 내고 大學課程이 생기면서 中斷되었읍니다.

1950년에 韓國에서 처음으로 四年制 看護學部 大學課程이 梨大 杏林院內에 設置되었다가 6. 25動亂으로 말미암아 一時 中斷 되었다가 1955年에 文教部의 再認可를 얻어 梨大 醫大 看護學科로 다시 發足하여 1955年에 첫 學年이 始作 되었고 1964年 現在까지 七回 卒業生 196名을 輩出 하였으며 그들은 各 醫療保健機關과

教育系에서 活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브란스 看護學校는 1953年 以來 高等學校 卒業生을 받아 들이고 看護學校로 初級大學 課程으로 있다가 1957年 四年制 大學으로 昇格하였는데 1964年 現在까지 八回 卒業生 261名을 輩出하였습니다.

1958年 scandinavia 三國과 大韓民國 政府에 依하여 medical center가 設置되고 各 國公立病院看護員을 爲한 보수 看護課程이 實施되고 看護學校도 設置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國立 서울大學校 附屬 病院 附屬看護高等技術學校가 醫科大學內에 看護學科로서 새로 設足하여 1964年 現在 三回 卒業生 108名을 輩出하였습니다. 이어 1964년에는 카톨릭醫科大學內에 또 看護學科가 設置되었습니다.

近年에 와서 우리나라 看護教育은 年々이 發展하여 正規 大學課程인 上記 四個校 外에도 學制上으로는 高等技術學校였으나 自體의 水準向上을 爲하여 數年前부터 高等學校 卒業生만을 入學 許可하는 看護學校數가 增加되어 19個校가 初級大學 課程으로 있고 六個校의 看護高等技術學校를 볼수 있습니다. 現在 全國의 看護學校 數는 모두 29個校입니다.

1962年 醫療法습이 大幅 改正되어 助産 修習課程이 看護教育에서 分離되고 檢定 資格 考試制가 廢止되고 看護學校 卒業生을 爲한 國家考試制가 採擇되는 한便 免許 看護員들의

年次 申告로 看護員들의 實態把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65년부터 韓美財團의 經濟的 後援으로 文教部內에 高等教育局 科學教育課內 看護教育 擔當官 촉탁을 配置하는 同時 看護教育 審議委員會 (科學教育 審議 委員會의 分科會談로)가 再發足하였습니다. 이는 明年度(1966年)부터 韓國 政府豫算으로 正式 職制와 豫算을 樹立하기 爲한 條件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看護教育 發展을 爲해 새로운 看護學校 基準突과 敎科課程을 作成中이나 文教部에 期待하는 바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以上으로 우리나라 看護教育의 發展 課程을 簡單히 살펴 보았거니와 우리나라 看護教育도 高等教育과 같이 그 시초가 他律的이었다고 볼수 있고 中途에 發展이 政治的으로 抑壓되었던 것이 解放과 더불어 幾何 급수의인 膨脹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發展 課程은 결코 正常的이었다고는 볼수 없으며 多分히 自體內의 矛盾을 많이 內包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 모쭈은 그대로 看護教育 發展에 妨害가 되는 條件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主體的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女性의 地位와 社會的인 인습等に 비추어 볼때 女性의 獨占的인 職業으로서의 看護事業을 爲한 準備過程인 看護教育이 꾸준한 발전으로 發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